

배포 일시	2022. 12. 12.(월)		
담당 부서	공정건설추진팀	책임자	팀 장 우종하 (044-201-3518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원 (044-201-354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민안전 · 건설업 경쟁력 강화 위해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중앙일보, 12.11) >

◆ 협회는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주장

- 종합·전문건설업 간 상호진출 허용으로 전문성 있는 다양한 건설기업이 유지보수 사업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. 다만,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도 여전히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업계와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('20.12)한 바 있으며,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*를 제공하여, 이미 약 73%(5,202/7,093개, ' 22.12.2 기준)의 시설물 업체가 업종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.
- *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유예(최대 '29년까지), 종전 시설물업 실적 전환 및 가산(최대 50%)
-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의 전면 백지화는 정부의 업종 전환 정책 및 혜택을 믿고 업종 전환을 완료한 업체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공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,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관련 업계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.